

기준없는 건축심의...하늘 찌르는 아파트 숲

광주시, 누문동 46층 13개동 건축계획 조건부 의결

지역 첫 40층 통과...문화수도 걸맞는 건축물 없어

광주에서 문화수도에 걸맞는 건축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미성이나 상징성보다는 수익성만 고려한 30층 이상 초고층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등이 시가지 내외에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내 고층화가 심해지면서 광주시가 구체적인 통괄적인 건축물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1회 건축위원회 결과 46층 13개동 오피스텔을 짓는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계획이 조건부 의결됐다. 광주 건축물 역사상 40층이 넘는 건축물이 건

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7만4269.4㎡의 대지면적에 27.03%의 건폐율, 450.26%의 용적률을 적용해 33만4407.9㎡의 연면적에 2913세대 규모의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253개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광주시 곳곳에는 이 같은 초고층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구 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북구 양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북구 각화동 개발사업, 서구 능성동 주상복합 등이 모두 39층을 짓겠다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전에 상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심의과정에서 3~5개층이 낮아지

고 있으나 '화색빛 아파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6층으로 조건부 의결된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경관·색채·디자인 분야 조건은 ▲층별로 색상 차이를 둘 것 ▲최고층 2개동 옥탑 특화설계 ▲각 지역별 칼라존과 지하주차장 색상 같은 톤 계획 등에 불과했다.

이처럼 초고층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이 잇따라 심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의 특징, 정체성, 문화 등을 감안한 건축물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 경관을 좌우하는 건축물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없이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상위법률과 중앙정부부처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 역시 심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총칙, 위원회 운영 등만을 간략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해 지난해 9월까지 5차례 개정해 건축물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기준은 역사성, 공공성 및 공동성(배려),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계획,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지속성(친환경),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 주차장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현재 20층 후반대의 아파트가 들어섰어도 도시 경관의 저해가 상당한데, 30층, 40층을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광주를 어떻게 만들어놓을지 걱정"이라며 "고층 건축물이라도 제대로 된 건축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北 2인자 황병서 처벌說

국정원 "20년만에 인민군 총정치국 검열"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황병서(사진) 총정치국장 등을 처벌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이 대총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말하기가)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병서 등의) 서열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처벌 수위를 확인해달라는 언론의 거듭된 요청에 국정원과 다시 상의한 뒤 "추정해서 보아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등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최룡해(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주재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다. 2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해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이들이 처벌될 정도면 그 밑의 장교들에 대한 처벌도 뒤따랐을 것"이라면서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한데 그렇다고 군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딱 이것만 문제 삼아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들은 이전까지는 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순서로 호명했는데 황병서가 뒤로 밀린 것이다. 황병서는 지난 10월 13일 북한 매체에 군 총정치국장 직책으로 등장한 이후 북한 매체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 대통령, 신속 복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임시 일정이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 이같이 언급한 뒤 "당장은 피해복구와 수습 실사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진을 미리 마련해두겠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을 떠나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시는 포항과 인근 주민, 수험생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포항시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도입 당시에는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연합뉴스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에서 기상청 관계자들이 '액상화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액상화 현상에 3.0 여진 수 차례...경주 22번

"미래 예측 불가능"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3.0대의 비교적 큰 규모 여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포항 강진의 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때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본진으로 땅이 세차게 흔들린 데다 땅이 물러지는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향후 여진의 규모에 따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45분 4.7초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여진에 이어 이날 오전 6시 5분 15초에 비슷한 장소(북위 36.14도 동경 129.36도)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일어났다. 지난 15일 본진이 발생한 지 몇세월인 이날까지 규모 3.0대의 여진이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포항 여진은 총 58회 발생했는데,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6번 있었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당

시 본진(규모 5.8) 발생 열새째까지 규모 3.0 이상 여진은 총 11차례 발생했고, 이후 올해 11월 9일까지 22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일 뿐, 경주 지진의 여진 상황만을 근거로 이번 여진 추가 발생 가능성을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며 "지금까지 지진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림니다

2017 지진 피해 주민 돕기 성금 모금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광주일보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으며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룬 시일내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2017년 11월 21일(화) ~ 2017년 12월 15일(금)
 ◇ 계좌번호:
 농협 106906-64-013491 ◇ 예금주:재해구호협회
 국민은행 556090-78-002505 ◇ 인터넷 기부: www.relief.or.kr
 기업은행 001-001350-93-289 ◇ 휴대폰 문자 기부: #0095(1건당 2000원)
 신한은행 5620-28-88600396 ◇ ARS 기부: 060-701-1004(한 통화 2000원)
 우리은행 262-751361-18-435 ◇ 성금 모금 안내: 1544-9595

한국신문협회 · 光州日報社

비금도·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매 14억(일시불 대폭조정), 무인도

010-3605-5000 교환가능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 ▶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 ▶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 ▶ 나주혁신도시내 빛가람동 대지239㎡ 건물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포함 매매가 4억2천만원
- ▶ 금곡동 중장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발, 주차장소재) 사정상급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가), 용지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 ▶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화)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남음)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 ▶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 ▶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 ▶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 ▶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 ▶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생산관리, 2800㎡ 전망최고, 매매가 1억350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개림오거리

기독교대한학교 입학설명회

호남의 영재들 텍사스로 입성하다

기독교학생 3주 미주훈련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비용 320만원)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 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종리도동길 42-34